

“전남-해외 학생들 ‘글로벌 우정’ 키워가요”

도교육청, 글로벌박람회 프렌드십 확대 네트워크 구축 온·오프라인 교류 지원...홍보 외교단 활동 등도 전개

전남의 학생들이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에서 맺었던 외국 학생들과의 인연을 이어나가고 있어 눈길을 끈다. 화상 연결·SNS를 통한 온라인 교류를 넘어 서로 얼굴을 마주하는 만남의 자리도 속속 성사되고 있어서다.

8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장에서 열렸던 '글로벌 프렌드십 프로젝트'를 확대 발전시킨 '글로벌 학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남 학생·외국 학생들 간 교류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람회장에서 학생들의 큰 관심을 받았던 '글로벌 프렌드십 프로젝트'는 한국과 외국 학생을 1대1로 연결해 다양한 체험 활동을 운영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이다.

박람회 기간 한국을 비롯해 베트남, 몽골, 캐나다, 튀르키예, 일본, 중국 등 30여명이 참여해 우정을 쌓았다. 이들은 박람회에 흘러나오는 K-POP 음악에 맞춰 함께 춤을 추고, 각국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행사장의 열기를 더했다.

박람회 이후에도 광양백운고, 여수정보학교, 목포상업여고, 전남교육청국제교육원 등은 여행·학교생활을 주제로 교류하고, 만남의 자리도 마련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글로벌 학생 네트워크'를 운영해 학생들이 국제적 인연을 온·오프라인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네트워크는 앞으로 22개 시군교육지원청과 22개 박람회 참여국으로 구성된 '국제교류 네트워크'와 연계해 ▲글로벌 학생 네트워크 협의회(학생 의회) ▲글로벌 교육과정 개발 및 심의 위원회 ▲글로벌 교육 홍보를 위한 외교단 활동 등을 전개한다.

박진영 광양백운고 교장은 "중국 북경성과 전남 학생들이 박람회 한 달 전부터 화상회의와 SNS를 통해 교류했고, 현재도 꾸준히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며 "오는 12월에는 25명의 학생들이 중국을 방문해 다시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류에 참여한 한 학생은 "다양한 나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의 '글로벌 프렌드십 프로젝트'에 참여한 전남외고·캐나다 학생들이 양국의 국기를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라의 친구들과 함께 체험을 즐기면서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고, 각국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추억

이 됐다"며 "우리들이 직접 기획해 국제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대중도교육감은 "박람회가 남긴 유·무형의 유산들을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 국제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전

남의 학생들이 지역을 넘어 세계를 무대로 자신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이지

‘국제 바칼로레아’ 초등교육 확산 힘 보탠다

광주교대, IB PYP 후보 광주부설초교와 ‘내일교실 박람회’ 비판·창의적 사고훈련 수업 공개...학생 탐구 결과 전시

광주교육대학교가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워주는 ‘국제 바칼로레아(IB) 초·중·고 교육과정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8일 광주교육대학교에 따르면 최근 광주교대 풍향문화관에서 국제바칼로레아 초등교육 프로그램(이하 IB PYP) 확산을 위해 후보 학교인 광주부설초등학교와 함께 ‘IB 교육 글로벌 허브 구축, 내일교실 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IB PYP를 지역 사회에 적극 홍보하고, 지역 학생들에게 창의적이고 비판적 사고를 촉진하며, 국제적 관점과 문화적 이해를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박람회에서는 이해정 교육과정혁신연구소 소장이 ‘AI 시대 미래교육: 왜 IB 교육인가’라는 주제로 초청 특강을 했다.

이해정 소장은 “IB 교육은 학생 스스로 지식을 습득하도록 유도하고, 토론과 발표 등 의사소통과 협업을 토대로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 방식”이라며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은 우리의 근원처럼 훈련을 통해 길러질 수 있으며, IB 교육에서는 말하고 쓰지 못하면 모르는 것으로 본다. 결국 속도의 문제일 뿐, 미래 교육은 IB 교육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강 이후에는 광주부설초의 2025년형 교실 수업 공개와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한 결과를 전시하는 ‘IB를 품은 내일교실 박람회’가 진행됐다.

정종문 광주교대 부설초 교장은 “지난해 10월 호남권 최초 IB PYP 후보 학교로 선정된 이후 IB 연수 운영 및 수업



을 공개하면서 지역에 새로운 교육 모델을 제시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며 “토론과 발표 등을 통한 의사소통과 협업을 토대로 스스로 지식을 습득하고, 문제 해결 능력 및 창의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승준 광주교대 총장은 “미래 사회 교육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와 목적을 되찾기 위해 IB 교육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글로벌 대 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이지

조선대, 산자부 EV 배터리 접합기술 실증 구축사업 수행

광주시와 공동...안전성 확보·품질관리 방안 등 마련

조선대학교는 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2024년도 EV 배터리 접합기술 실증 기반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돼 광주시와 공동 수행한다”고 밝혔다.

방희선 조선대 융접·접합과 학과장과 교수는 이 사업에서 기업 지원, 연구 개발, 전문기술교육 및 인력 양성 등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 사업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기차

의 주요 화재 원인으로 알려진 배터리 접합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방법을 마련하고, 전기차 배터리 제조 부품부터 완성품까지 접합부에 대한 실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까지 접합 관련 국내의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제조기업들은 자체 기준에 따라 배터리를 제작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는 접합부 안전성을 실증하는

기반조차 전무한 실정. 이에 광주시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국비 102억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188억 원을 투입해 배터리 접합기술 실증센터와 시험평가 장비를 구축하고 접합부 실증, 시제작 지원 등 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방희선 교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50억원 상당의 접합 장비로 학생들이 국내·외 최초 EV 배터리 접합기술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다이지

순천대 일자리플러스, 진로·취업·심리 상담 제고

교내 상담 부서 협력 ‘통합연계상담 DAY’ 공동 운영

순천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최근 재학생들의 진로·취업 및 심리 상담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내 상담 유관부서 통합연계상담 협의회’를 운

영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순천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인문대학, 취업지원실, 학생상담센터, 인권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등 5개 부서가 참여한 가운데 통합적 상담 요구에 따른 원스톱 상담 접수 및 진로·취업·심리 통합연계상담 지원 체계 마련과 상담 서비스 질적 제고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교내 상담 통합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내담자 발굴을 위해 하반기에 ‘통합연계상담 DAY’를 공동 운영한다. /순천=양홍렬 기자